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을 위해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공동대응한다

- 조승환 해수부 장관, 부산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간 친환경 선박연료 병커링(Bunkering) 업무 협약식 참석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7일(금) 울산항만공사에서 열린 부산항만공사(BPA)와 울산항만공사(UPA) 간 ‘친환경 선박연료 병커링 협력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수산부가 11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내 해운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시장에 대비해 해수부와 양 항만이 상호협력하고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서에는 국내 해운과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시장 형성을 위한 인센티브(Incentive) 지원 ▲병커링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Marketing) 활동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울산항은 국내 최대 에너지허브(Energy Hub) 항만으로 병커링 선박을 통해, 국내 최대 컨테이너(Container) 항만인 부산항에 기항하는 글로벌(Global) 선사의 병커링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 울산항은 국내 1위, 세계 4위 수준의 액체화물 처리 항만(연간 약 165백만 톤)으로 대형 병커링선 등을 통해 부산항 수요 대응 가능(울산항-부산항 간 거리 약 50km)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연료 정보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하고 양 항만을 운행하는 병커링 선박의 항비를 감면하는 한편, BPA는 ‘친환경 병커링 협력’을 선사 마케팅 시 활용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연료의 패러다임(Paradigm)이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Infrastructure)에 강점이 있는 울산항과 친환경 선박연료의 주요 수요처인 부산항 간의 공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양 항만이 상생하여 한국 물류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책임자	과 장	최종욱	(044-200-5770)
		담당자	사무관	김상현	(044-200-5773)

